

무주가 선사하는 문화예술 무대

악극·악기 연주·춤·노래·전시 등 문화공연 ‘풍성’

무주군이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11월의 끝자락을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로 채운다. 무주군에 따르면 27일에는 (사)무주문화원과 극단 ‘그립있는 풍경’이 공동 주관하는 악극 ‘올 아버지(아빠의 청춘)’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호연에 이은 앙코르 무대로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와 저녁 7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청춘 이야기를 1960~1970년대 대중가요와 민요, 타령과 함께 풀어낼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극단 ‘그립있는 풍경’의 양상모 단장이 직접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았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무주군민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열연을 펼친다. 29일에는 ‘제37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전 통생활문화체험관과 최북미술관 등지에서 개최된다. ‘문화학교’의 1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강선영류 즉흥무’, ‘스텔링드럼’, ‘폴루트’, ‘바이올린’, ‘통기타’ 연주 등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판소리와 바이올린, 가야금과 피아노, 다양한 타악기로 퓨전국악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사운드를 구현하는 음악그룹 ‘센티멘탈로그’와 클래식과 재즈를 기반으로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뮤즈그레인’ 등 예술인 초청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민화 6점, 서양화 13점, 서예 9점 등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문화가족의 날(29일) 당일에는 최북미술관 로비에서 문화학교 수강생들 작품을 이용한 ‘एको백 채색’, ‘키링 만들기’, ‘가훈 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맹갑상 무주문화원 원장은 “지난날의 향수를 부르고 잠자던 감성을 일깨울 풍성한 특별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라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가 선사하는 문화예술 무대에서 전통



제37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 포스터

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동의 순간을 함께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인문문화축제로 우수사례 기관 선정

중장년층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삶의 질 향상·지역 문화 활성화 기여 기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제2회 인문문화축제 - 다정한 존재들’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진행, 전주문화재단은 사례공유 및 교류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추진한 인문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행사 내 ‘함께하는 다정한 시간’ 세션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운영된 인문 프로그램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재단은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2025 중장년 인문프로그램 - 중장년보호구역: 인문예술통행로’의 운영 경험을 공유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을 중심으로 삼천생활문화센터, 서신도서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세 기관의 긴밀한 협업과, 전주문화재단이 독

자적으로 운영한 여행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획력·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지역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축제에서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범이 될 만한 인문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일본 오사카서 문화공연 펼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과 주 오사카한국문화원(원장 김혜수)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주 오사카한국문화원 누리홀에서 판소리 눈대목을 중심으로 한 특별공연 ‘판소리 눈대목 공연 춘향가·수궁가·심청가로부터’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판소리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을 현지에 소개하고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공연은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의 주요 장면을 선별해 약 70분간 진행해, 작품의 서사와

음악적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해 판소리 특유의 장단과 장면 전환을 담백하게 전달했으며, 대목 간 흐름을 정돈해 작품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출연진으로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기악단, 무용단(예술감독 유수정)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특히 이번 공연에는 판소리 사설을 일본어로 번역해 활용함으로써 관객이 서사와 표현을 보다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이번 무대를 통해 판소리 공연이 일본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해외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을 소개하고 교류의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무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3부 ‘강패와 경찰’ (1)

왜 도망가려고 해!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강정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강동식이 미련해 간 북분지주는 이미 다 마셔버려 강정근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담근 북분지주를 개봉해 주머니 받거나 하면서 마셨는데 꽤 취한 상태였다.

“그만 자야겠네. 내일 또 일 해야 하니깐. 저네도 여기서 자고 가.”

동식은 취한 대다 밤도 깊은 터라 강정근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아침에 밥을 먹고 가라는 걸 마다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한 뒤 강정근의 집을 나왔다. 아우더를 몰고 고창을 으로 나와 석정온천으로 향했다.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온천이 최고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어젯밤 강정근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복기해봤다.

강정근은 시시콜콜 어린 시절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너무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중학교 때까지밖에 듣지 못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만으로는 강남준이란 사람과 동식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박명희란 여인과 동식과의 관계 또한 무관해 보였다.

왜 강정근은 그네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다 했을까. 고민해봤지만 딱히 강남준 박명희와 자신 강동식이 연관되고 만나는 교차점은 없었다.

다만 이야기 말미에 술에 취하고 잠이 쏟아지는 통에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강정근은 박창수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었다.

박창수는 동식에게 서울에 사는 강용대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엇그제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어둠이 차버린 차안에서 봤던 터라 이목구비를 확실하게 보진 못하였지만 박창수는 강정근과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였다. 강정근이 언급하는 박창수가 그 박창수가 아닐까. 물론 전혀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다. 창수라는 이름이 똬한 이름은 아니니까. 다음에 강정근을 만나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 머리를 탕 안으로 푹 담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가야한다. 석정온천에서 나온 동식은 아우더를 몰고 고창을내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고 달방으로 쓰고 있는 모텔로 향했다.

“강동식 씨!”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막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내 두 명이 다가오며 동식을 불렀다.

어디서 본 얼굴들이었고 직감적으로 형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건달이라면 이름 뒤에 ‘씨’를 붙이지 않는다.

일단 뛰어야 한다. 형사만 보면 무조건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들과 마주쳐서 이로운 게 없다. 주차장 입구 쪽으로 내달렸다.

“강동식! 거기 서!”

사내들은 동식을 쫓아왔다. 동식은 골목길을 따라 달렸다.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터였고 아침에 온천물에 녹진하게 몸을 풀어놓은 상태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달리고 있었지만 동력이 허벅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허방을 떠기는 느낌이었다. 이래가지고 좋은 결과는 당연히 얻을 수 없다.

동식은 얼마 가지 못해 사내들에게 붙잡혔다. 동식은 잡히면서 생각했다.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허억 허억, 강동식, 왜 도망가려고 해!”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식을 툷했다.

“허억 허억, 왜 잡으러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왜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장 가져왔어요?”

감옥을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었다.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고 있다.

오정태의 지시가 있었지만 실제로 건설회사들을 협박한 일도 없다. 모의한 것만으로 이렇게 형사들이 체포할 일인가? 범죄를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하나가 갈고리가 되어 속을 잡아채는 것이 있긴 했다. 바로 박창수 건 말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